



01. 목회권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오늘은 순교자기념주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국군장병,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02. 창립기념주일

지난 42년간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제: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

② 날짜: 7.10(주일)

③ 주요행사

· 창립주일예배: 7.10(주일)

· 창립기념 컨퍼런스: 7.2(토)

· 42주년기념 선교 특별새벽집회: 7.5(화) - 9(토)

· 선교사역전시회: 7.2(토) - 12(화)

03. 유아세례식

①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6.19(주일) 주일낮예배 4부 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결단하는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구분	접수방법
현장접수	베들레헴성전 1층 사무처에서 신청서 접수
온라인접수	교회홈페이지(www.msch.or.kr) 팝업에서 '2022 유아세례신청' 클릭 후 접수(https://bit.ly/3dvkPPB)

· 세례일정: 추후 개별 공지

· 신청자격: 부모 중 한 사람 이상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자.

※ 총회 헌법 개정에 따라 6세까지의 아동도 유아세례가 가능하오니 모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순차적으로 유아세례식이 진행됩니다.

· 문의: 사무처 ☎ 02-440-9104

04. 성년식

오늘 주일찬양예배 시간에 성년식이 있습니다. 성년대상자(만 19세, 2003년 출생자)는 모두 성년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장: 흰 상의, 어두운 하의

· 문의: 대학부 ☎ 02-6930-9493

금주 신생아	명성교회 출생 신생아(2022년 1월 - 현재)
8명	총 74명

신뢰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팬데믹 이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건강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뿌리가 시내를 향해 뻗어야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정체성을 시험하십니다. 5절의 말씀은 더위와 가뭄의 때에 사람을 찾아다니며 육신을 믿으면서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위와 가뭄을 통해서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나?”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 더위에도, 이 가뭄에도, 이 어려움에도, 이 환란에도,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제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큰 복입니다.

신뢰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천로역정》을 지은 존 번연이 “진실하다는 것은...입술의 수고에 주목하는 대신 자기의 마음이 진실한지 살펴본다는 뜻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 우리 공동체 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신뢰를 올바르게 쌓아가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실된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정함의 은혜와 결실의 은혜를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섬기는 이들

원로목사 김삼환
담임목사 김하나

목사 권삼열 김남수 김다림 김동민 김동진 김득열 김병규 김봉기 김석호 김선우 김요한 김우중 김윤호 김은영 김은자 김준곤 김준환 김춘희 김희영 류현웅 문명석 문승진 박영호 박요한 박현규 방유경 백재용 서찬성 손원재 손지목 송한솔 신경민 신동신 신충현 여주형 우종협 유태규 윤석진 이경민 이대선 이택기 이서구 이정수 이지명 임용섭 임은목 임지환 장중민 정구일 정홍배 조성민 조재영 천혜림 최대열 최에녹 한바울 한정민 허승환 황대석 황정준

협동목사 김도훈 노영상 안주훈 최윤배
교육목사 권오병 김은혜 이승갑

전도사 권예찬 권혁현 김경환 김동욱 김믿음 박경애 박고운 박근우 박보하 박우진 신재희 오대용 이경환 이상인 이 성 이울관 이은세 이재민 이주현 임기도 정구현 편경호

교육전도사 김석현 김승택 김용문 김웅기 김윤영 김준영 문태은 박경민 박재현 박초롱 손찬영 송영호 이성현 이준민 이준식 최하경

디아스포라 박경희(태국) 박종근(중국)

오직주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